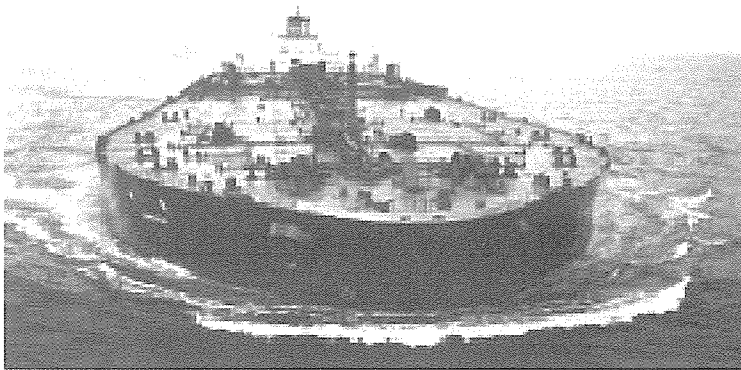




VLCC시황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예상

최근의 시황급락 연말연휴 등의 영향



최근 선박수급의 불균형으로 급격히 하락했던 VLCC 시황이 1월말 이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브로커들은 전망하고 있다.

Lloyd's List에 따르면, 성탄절과 연말연휴 시즌으로 인해 VLCC 시세는 대폭 급락했지만, 모든 이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면서 시장은 다시금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발 극동향 VLCC 운임지수는 2004년 10월 이래 최저 수준인 WS 70선까지 하락했으나,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1월 중순부터 시세는 반등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또한, 브로커들은 어떠한 지역에 한해서는 투입 선박이 과잉상태가 아니며, 시황이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석유사인 Unipecc은 Golden Ocean의 27만 5,600DWT 'Golden Stream'호(1995년 건조)를 중동 걸프-중국향 항해에 WS 70으로 성약했으며, Sinochem은 'Iran Nabi'호(1996년 건조)를 WS 80에, Sinomart는 Kristen Navigation의 Astro

Lynx(1992년 건조, 24만 3,900DWT)를 WS 70으로 성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중동발 극동향 유조선 운임이 크리스마스 및 신년휴일 종료와 함께 수요가 반등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14개월만의 최저치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중동-극동향 VLCC 운임율은 지난 11월 WS 320선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이후 최근에 WS 70선으로 급락했는데, 이는 성탄절과 신년연휴 등 휴일과 OPEC의 감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Frontline의 Oscar Spieler는 예상 밖으로 선박과잉이 심화되면서 운임률 조정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1월과 2월에는 시황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